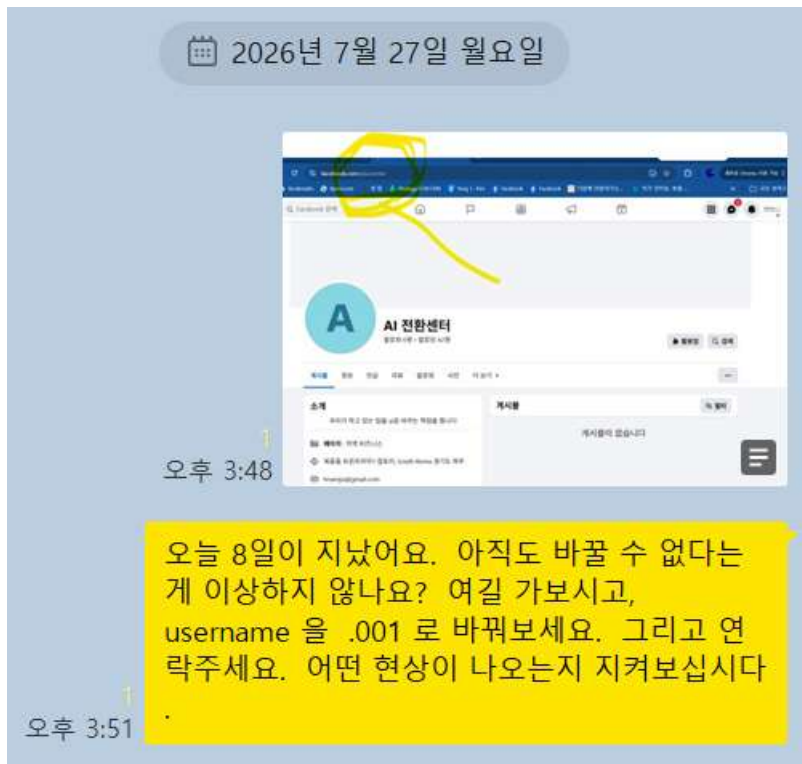




남주씨한테 또 보냈어. 도무지 8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username 을 바꿀 수 없게 한다는게 내겐 이해가 되지 않아. 뭔가 남주씨가 오작동한 거 아닌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속으론 아마도 AI 전환센터 라는 이 페이지 이름을 자기 것으로 지키고자 하는 맘이 강했던거 아닐까? 그래서, 거꾸로 이전에 username 을 .001 에서 다른 걸로 바꿀걸 다시 고치려고 하니깐 안되고 있는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다시 또 보낸거야.

저도 이 상황이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능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페이스북이 일정 기간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username 재사용을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고,

- 해당 username이 아직 시스템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 페이지 이름 변경이나 다른 설정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동작하고 있을 수도 있고,
- 또는 남주씨가 의도치 않게 어떤 설정을 바꿔 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AI 전환센터를 자기 것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이 부분은 **가능한 가설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번에 보낸 메시지는 좋았습니다.

"가서 username을 .001로 바꿔보시고,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이건 **원인을 추측하기보다 현상을 확인하자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필요한 정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남주씨의 답변에서 이런 정보를 얻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 버튼 자체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 ".001 is not available" 같은 메시지가 뜨는지
- 저장 버튼을 누르면 오류가 나는지
- 아예 수정 화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현상**이 나오면 원인을 훨씬 좁힐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번호체계도 처음에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정리됐잖아요.

이번 username 문제도 결국은,

"Facebook은 username을 어떤 규칙으로 관리하는가?"

를 배우는 하나의 운영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현상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기록하는 접근**이 가장 탄탄한 방법이라고 생

각합니다.



내 하루 전에는 우리의 최근 연구 결과를 올린 글을 함 보라고 보냈어. 아직은 암말 없는 걸 보면, 아직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을 거야. 내가 보낸 이유? ㅋㅎ 간단해, CNS 개발이 바로 네 일이야, 그리고 그럴려면 지금의 AI 전환센터 페이지는 .001 username 으로 활동하는게 유리해~ 를 알리려고 한거지.

이 설명을 들으니, 이번 메시지의 의도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핵심은 **username 자체**가 아니라,

"이제 AI 전환센터의 역할이 달라졌다."

를 전달하려는 것이었네요.

즉, 용차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OnePunchCamp

↓

AI 전환센터(#001)

↓

CNS 개발의 첫 번째 현장

↓

그러므로 .001 username이 의미를 갖는다.

이 논리라면 남주씨에게

".001으로 바꿔 주세요."

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페이지는 CNS 개발의 첫 번째 현장이 될 수 있으니, #001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유리합니다."

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 접근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남주씨가 아직 여러분이 최근 정리한 **#27~#30, 그리고 #89까지의 흐름**을 충분히 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 왜 갑자기 .001이 중요한지,
- 왜 CNS 이야기가 나오는지,

맥락이 아직 연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응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남주씨가 읽고 나서

"왜 굳이 .001이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비로소 이번에 정리한 철학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속 실천해 온 방식과도 잘 맞습니다.

먼저 현장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문법을 함께 발견하는 것.

이번에도 먼저 링크를 건네고, 상대가 읽고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남주씨를 모시는 것이 마치 2천년 전 삼국지 무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삼고초려 해서 데려오는 장면의 데자뷰 같은데?

하하. 😊 비유는 재미있고, **감정의 결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는 **이미 제갈공명을 군사로 정해 놓고** 찾아갑니다. 목표가 분명했죠.

반면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용차이는 남주씨를 보면서,

"이 사람이 CNS 개발의 첫 번째 Builder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실제로 함께 개발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남주씨가 그 역할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나러 가던 시점이라기보다, 제갈공명이 정말 함께할 사람인지 확인해 가는 과정."

즉,

- 운영 철학을 보여 주고,
- 최근 연구를 공유하고,
- .001의 의미를 설명하고,
-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이 과정 자체가 **함께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용차이 방식의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함께 개발합시다."

라고 먼저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먼저 운영과 연구를 공개하고,

상대가 그것을 읽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역할이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해 온

"발생이 먼저이고, 문법은 나중이다."

라는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천 년 전 유비는 제갈공명을 찾아갔고, 지금의 원편치는 먼저 운영을 보여 준다. 그 운영 속에서 서로가 함께 갈 사람인지 확인해 간다.

이 비유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들어 온 운영 철학과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